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5월 셋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중국정부 소액 해외직구 규제 1년 유예 검토중
화장품 산업 본고장 공략... K뷰티, 줄줄이 파리 입성
‘툼스타=대기업 모델’ 공식, 화장품이 깬다

법령 정보 12

협회 업무추진현황 14

회원사 뉴스 19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중국정부 소액 해외직구 규제 1년 유예 검토 중('16.5.11)

- 중국 경제지 상하이증권보는 11일 중국 정부부처가 최근 합동 회의를 갖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정책에 대해 1년간의 과도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세관 등록 등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임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1/0200000000AKR20160511066200089.HTML?input=1195m>

EU 집행위, 2017년부터 화장품에 MIT 성분 전면 금지('16.5.12)

- 코트라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는 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로션, 데오드란트 등)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덴마크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면도크림이나 샴푸와 같은 세정제품에까지 MI 사용금지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2017년부터 EU 국가 전역에서 화장품 내 MIT 성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비롯한 타 산업으로도 MIT 금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련링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5&nid=195655>

화장품·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인체에 해로울 수도('16.5.10)

- 세안제 등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부작용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5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했으며, 미국은 마이크로비즈를 2017년 7월부터 전면 사용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정한 상태이며, 유니레버, 존슨앤드존슨, 러쉬, 로레알, 바디샵, P&G 등은 자사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 관련링크: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7>

손문기 식약처장, '화장품 OEM 전문 제조업체' 고충 청취('16.5.11)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주재로 코스메랩(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화장품 OEM(ODM) 업체 간담회'에서 손문기 식약처장이 화장품 OEM 전문 제조업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관련링크: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1012274&thread=01r01>

화장품 산업 본고장 공략... K뷰티, 줄줄이 파리 입성('16.5.16)

-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된 K-뷰티 열풍이 유럽에도 상륙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작년 한국 화장품 업체인 투쿨포스쿨은 프랑스 라파예트(Lafayette) 백화점에 입점했고,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국내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과 기술 교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음
- 화장품 업계에서는 프랑스 수출 증가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는 화장품 산업의 본고장으로 꼽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성공하면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산이 안착할 수 있다고 봄

- 관련링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54.html

화장품만 싹쓸이하던 유커, 이젠 헤어·보디 용품도 사간다('16.5.11)

- 과거 한국에 오면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주로 찾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달라졌으며, 최근에는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과 헤어 고데기, 보디 보습 제품 등으로 구매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
-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 노동절에 유커는 그동안과는 다른 패턴의 쇼핑을 즐기며 좀 더 한국 문화와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유커의 쇼핑 패턴 변화가 새로운 K뷰티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175100030.HTML>

중국 관광객 모시기 위한 '한-중-일' 면세점 대첩('16.5.12)

- 한국, 중국, 일본은 요우커의 지갑을 열기위해 각자 면세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측은 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효자 품목인 화장품 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기청에 따르면 요우커의 쇼핑은 면세점이 7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동 44%, 백화점 22%, 공항 21.6%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관세청은 작년 7곳의 국내 면세점 매출이 9조1,9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8,907억 원) 늘었다고 밝혔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2156/cat/10/page/1>

땡기머리 두리화장품, 이란 경제사절단서 20억원 규모 수출 논의('16.5.11)

- 두리화장품은 지난 2일 이란 경제사절단 프로그램인 '한국-이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해 이란 현지 8개 업체와의 미팅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음
- 두리화장품은 "이미 약 2년간 이란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ISO 22716', 'CGMP'를 획득했고 이란의 바이어를 통해 공장등록 및 제품 등록을 마쳤기에 이번 현지 미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U70LXT>

‘톱스타=대기업 모델’ 공식, 화장품이 깬다 (’16.5.16)

- 지난해부터 국내 화장품시장에 탈권위주의, 다원화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모델 계약에도 이변이 속출하고 있음
- 송중기, 고소영, 박해진, 김태희, 신세경, 박보검, 임수정, 공효진, 현빈, 송승헌 등 한류·A급 스타들이 대기업·브랜드숍이 아닌 중견·중소·신생기업의 전속모델로 연이어 발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보다 빠르게 가시화될 전망이다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2170/cat/10>

○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 증가

- 인터넷으로 구매, 한국산 아이디어 기능성 화장품에 관심 -
- 영국시장 진출 위해 인증비용 리스크 고려해야 -

영국 최대 미용·건강 유통망 Boots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BB크림



자료원: Dr Jart+

□ 지금이 영국 화장품 시장 진출 적기

-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18억5000만 파운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 한국 화장품의 영국 진출은 아직 시장진입 초기단계로,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은 많지 않으나 최근 영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 이에 따라, 향후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영국시장 직접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화장품의 대영 수출액은 약 549만 파운드로, 한국산은 영국 화장품 시장의 0.37%만을 점유하고 있음.
 - 영국 화장품 시장의 수입대상국은 프랑스(7억6490만 파운드), 독일(4억8150만 파운드), 미국(4억4460만 파운드), 이탈리아(2억93만 파운드), 폴란드(2억41만 파운드) 순임.

- 영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브랜드들이 선호됐으나, 최근 수년간 인터넷상에서 미용 관련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유행하면서 영국인들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정보에 노출됨. 또한, 국제 배송 서비스의 발달로 해외주문이 쉬워지면서 한국산 화장품을 구매하는 영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안나마리 솔로와이 온라인 화장품 유통사 뷰티마트의 창업자는 “영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시트 마스크, 클렌징 스틱과 같은 흥미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상품, 그리고 음식과 같이 생긴 디자인의 포장이나 만화 스타일의 그림 사용과 같은 한국산 화장품의 특징들이 관심을 유발한다”며, “확실히 한국은 미용상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라고 평가함.
- 세계적인 패션전문지 보그(Vogue)는 2016년 3월 9일 기사를 통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초기능성을 강조하는 듯한 혁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또한, “한국 화장품들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화장 스타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며 BB크림과 젤리프라이머(페이스마스크와 프라이머 기능을 동시에 수행) 같은 제품들을 소개했음.
- 하지만, 현재 영국시장의 주요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은 거의 없어 영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개인구매를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한국 브랜드들이 이 시장에 대한 직접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까다로운 EU 화장품 인증제도

- 한국산 화장품이 영국에 수출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은 EU의 까다로운 인증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유럽시장 인증을 시도하는 기업이 적어, 현재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영국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는 2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됨.

○ EU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조사는 다음을 숙지해야 함:

-제품이 EU 모든 관련 법을 충족해 EU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확인할 것(EU의 관련 규정:

http://ec.europa.eu/consumers/sectors/cosmetics/files/doc/manual_borderlines_version50_en.pdf)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가 EU에서 금지되지 않은 물질인지 확인할 것(EU 금지 물질 목록: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76L0768:20100301:en:PDF>)

-제품이 EU의 모든 관련 법을 충족한 것임을 증명하는 'PIF'(Product Information File) 문서 작성

- 위 내용을 책임질 현지 책임자(EU 거주자이어야 함)를 선정하고, 그 연락처를 제품의 라벨에 표시

- EU 라벨링 규정을 참고해 EU 현지에서 사용되는 라벨을 부착할 것

- 화장품등록포털 웹사이트(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해 제품을 정식으로 당국에 신고할 것(이 정보를 토대로 판매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

- 제품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주장이 실리지 않아야 함.

-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금지됨.

○ 이러한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자금력이 충분치 못한 기업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국시장 진출은 리스크 분석이 우선돼야 함.

- EU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출시하는 모든 제품을 인증 받아야 하므로, 기업이 런칭하려는 하나의 라인업 중 색깔만 다른 제품이라도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함. 따라서 한국산의 영국 내 인지도가 없어 진출 리스크가 컸던 과거에는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

□ 시사점

- 최근 들어 영국인들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해, 일부 한국 브랜드들이 영국 화장품 소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닥터자르트(Dr Jart+)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영국시장에 정면 도전하기 보다는 온라인 노출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홍보하는 전략으로 인지도를 쌓아 진출할 수 있었음.
 - 영국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인 버치박스(BirchBox)는 고객들에게 월 회비(구독료 형태)를 받으면서 매월 각종 새로운 화장품 샘플들을 담은 상자를 보내주고, 고객이 마음에 들 경우 직접 정식 시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임.
 - 닥터자르트는 BirchBox를 통해 영국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고, 이곳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영국 최대 약국체인으로 25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츠(Boots)에 입점하는 데 성공
- 토니모리(Tony Moly) 또한 유사한 사례로, 온라인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직접 진출함. 2016년 중 유럽 전역에 82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포라(Sephora)를 통해 판매될 예정
- 수년 전부터 영국시장에 한국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이 진출을 시도했으나, 위와 같은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준비돼 있지 않았음. 영국에 제품을 들여오고도 비인증이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샘플 판매조차 할 수 없어 철수한 사례가 빈번했음.
- 영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하려는 제품의 EU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EU 규정 준수를 위한 수정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함. 또한, 시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BB크림과 같은 1개 제품을 시범으로 시장 반응을 살핀 후, 출시 라인업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Statista, BBC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 런던 무역관 2016. 5. 11**

〈 저작권자 © KOTRA &globalwindow.org〉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1호, 2016.05.17.)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의 크기 및 디자인이 다양한 화장품에 바코드를 탄력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화장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함
 - 제품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바코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 3)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 상기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제정에 따른 협약서 제출 안내

- 협회에서는 화장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을 제정함
 - 동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 이메일(jenko@kci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율규약 및 협약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9차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24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성분명위원회 표준화 명칭 (2016. 9차)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곰피잎/줄기추출물	
2	귤 잎추출물	Citrus Unshiu Leaf Extract
3	금앵자열매추출물	Rosa Laevigata Fruit Extract
4	녹용줄기세포배양액	
5	눈꽃동충하초균사체/녹차발효추출물	
6	다이라우릴다이모늄클로라이드	Dilauryldimonium Chloride
7	다이레이프씨도일에틸하이드록시에틸모늄메토설페이트	Dirapeseedoylethyl Hydroxyethylmonium Methosulfate
8	데실알코올	Decyl Alcohol
9	라우트라이모늄브로마이드	Laurtrimonium Bromide
10	락토바실러스/갈대뿌리추출물발효여과물	
11	민챙이추출물	
12	버터밀크가루	Buttermilk Powder
13	산양삼부정근배양액	
14	수박즙	Citrullus Lanatus (Watermelon) Fruit Juice
15	어류오일	Fish Oil
16	오존화올리브오일	Ozonized Olive Oil
17	줄줄기추출물	
18	진흙버섯균사체/가시여지잎발효추출물	
19	코카마이드디파	Cocamide DIPA
20	폴리(1,2-부탄다이올)-4 피이지/피피지-29/9메틸글루코스	Poly(1,2-Butanediol)-4 PEG/PPG-29/9 Methyl Glucose
21	폴리글리세릴-3올리베이트포스페이트	Polyglyceryl-3 Olivatate Phosphate
22	피피지-7/피이지-30피토스테롤	PPG-7/PEG-30 Phytosterol
23	함박꽃나무캘러스배양추출물	Magnolia Sieboldii Callus Culture Extract
24	효모/쌀발효여과물	Saccharomyces/Rice Ferment Filtrate

○ 교육,세미나,행사 소식

○ 제조판매관리자교육(부산)

우리 협회는 원거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월 13일(금)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05명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 제조판매관리자교육

우리 협회는 5월 17일(화)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16명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5월 중에는 5월 23일(월) 맞춤형화장품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6월 교육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에 모조품 유통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①**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대상국가: 중국, 태국, 홍콩)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게시글 『16년 K-BRAND 보호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정은 대리(Tel : 02-761-4203, Email : jenko@kcia.or.kr)

①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

- 중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유통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 및 현지 파견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지원

②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 현지 침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모조품 유통 관련 침해 실태 조사 및 신청사에서 원할 경우 현지 정부 기관의 행정 단속 지원

※ 침해 조사 대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방	☐ 분쟁예방 전략 (현지화네이밍 등)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해외 무단 先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제17회 식품의약품가족 테니스대회 참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등의 관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심신건강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제17회 식품의약품가족테니스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이에 보건산업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하여 회원사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정 : 2015. 5. 28(토) 08:00~19:00
- 장 소 : 정부 세종청사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 주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산업협회
- 신청기한 : 2016. 5. 9.(월)

※ 참가신청

-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정인 (043-719-1273, 011-344-1581)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e-mail(dhkd0812@korea.kr)로 접수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근로복지공단)

□ 집중 홍보기간 : 2016. 5. 1. ~ 5. 31.

□ 고용·산재보험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3대 취약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홍보기간 중 반드시 가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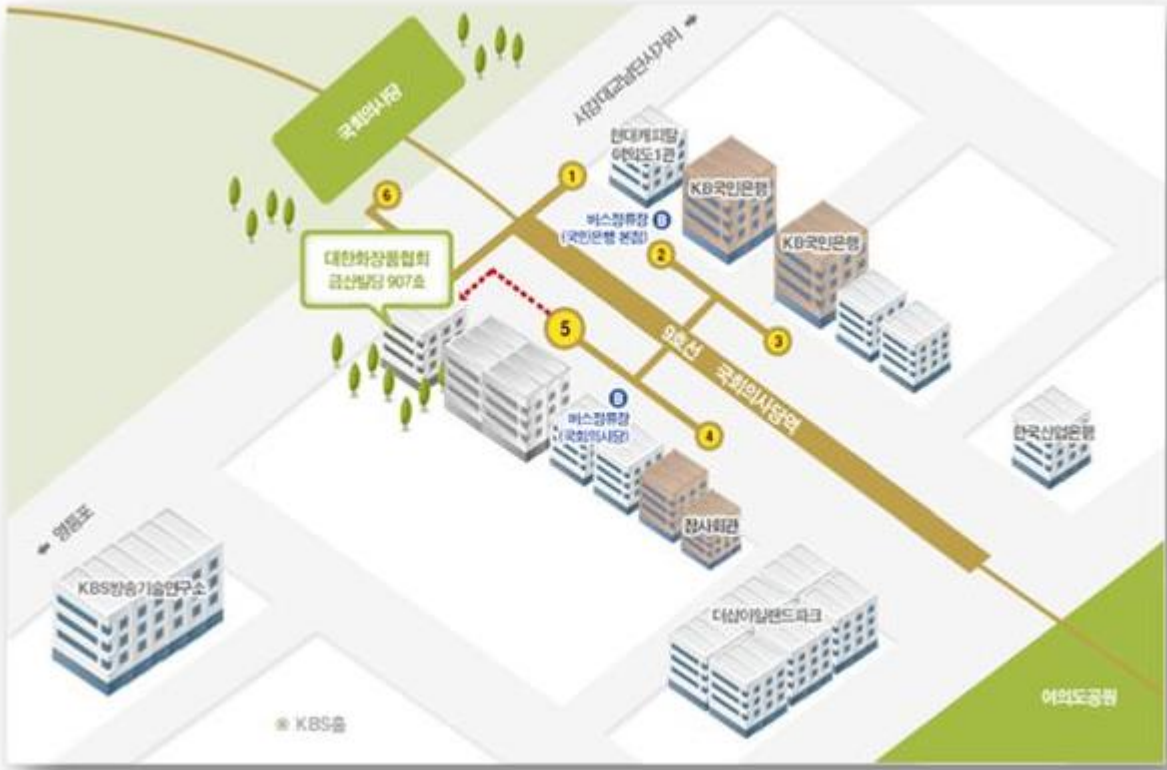
(주)코스메카코리아 창립 16주년(2000. 5. 12)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